

분과 6

한국어 통번역 연구

사회 : 이승연(삼육대학교)

틀 의미론에 기반한 문학번역의 어휘 번역 방법 연구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호가(한국외국어대학교)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WEN Xu, XIAO Kai-rong(2019)에서 제시하는 번역과정에서의 틀 조절, 구체적인 번역전략 4가지로 문학 번역 과정에서의 어휘 번역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어휘는 언어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만큼 한 텍스트의 각 구성요소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틀 의미론의 관련 연구 중 어휘와 관련된 연구성과는 어휘 교육 측면(김용(2017), 김규훈(2019), 김중진(2011), 마릉연(2015), 오주영(2010) 등) 그리고 어휘의 의미분석 측면(정주리(2000), 이정심(2012), 김동환(1999), 황련화(2022), 이준서(2013))으로 정리될 수 있다. 번역과 관련된 것으로 오류분석(홍정민(2016))이나 다의어번역(문미선(2004)), 은유의 번역(박정운(2013)) 등이 있다. 문학번역의 어휘 번역 방법 측면의 접근은 극히 드물었다. 본 연구는 이 상황을 타파하여 틀 의미론의 시각으로 문학번역의 어휘 번역 방법을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선정된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및 중국어 번역본 〈素食者〉, 〈素食主义者〉¹⁾이다. 〈채식주의자〉는 문학성 측면에서 주로 생태론, 페미니즘, 정신분석 등 관점에서 주제론적으로 연구됐으며 영향력에도 국내의 이상문학상뿐만 아니라 맨부커상 수상작이기도 하며 연구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틀 의미론은 낱말을 이해하는 데 그 낱말과 연관된 백과사전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고 주장한다. 틀 의미론의 시각으로 보면 번역은 출발어의 틀을 도착어의 틀로 조절하여 도착어로 재표현하는 과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틀 의미론의 시각으로 재정의되는 번역과정에 기초하여 그 과정에서 틀에 대한 조절을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틀 그리고 틀과 번역의 관계 두 측면에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고 3장에서 〈채식주의자〉의 어휘 번역 방법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4장에서는 본 연구를 다시 돌이켜 보면서 향후의 연구 방향을 기술하였다.

1) 번역자에 따라 서로 다른 번역 스타일이 보일 것이고 번역본 두 권을 모두 다루는 것은 보다 다양한 번역양상을 관찰하여 번역본 사이에서의 어휘 번역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틀

인지언어학에서 의미에 대한 견해로 점검표이론, 원형이론, 틀의미론 등이 있는데 본 연구는 틀 의미론의 시각으로 연구를 펼칠 계획이다. 임지룡(2006)에 따르면 Fillmore에 의해 명명된 점검표이론은 구조의미론의 ‘성분분석’이론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단어의 의미관계를 확인하는 데 효율적이다. 그러다 어떤 속성이 마땅히 점검표 목록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결정하기가 어려워 자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의 대안으로 원형이론이 나타나는데 단어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며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점검표이론보다 단어의 의미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시물이 추상적이거나 지시물이 가상적 대상물이라면 원형을 추출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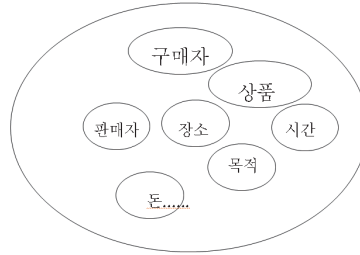
1970년대 Fillmore는 컴퓨터학 용어인 ‘틀’을 언어학으로 도입하여 틀 의미론을 제기하였다. 김동환(2005:64)에서 틀 의미론은 바로 틀이라는 인지모형을 사용해서 언어의 의미 현상을 다루는 이론이라고 정의하였다. 틀 의미론에 따르면 낱말은 그것과 연관된 백과사전적 지식인 전체적인 틀을 상기시키며, 그 틀을 바탕으로 낱말의 의미가 정의되고 이해된다고 주장한다. 그 낱말이 상기시킨 특정한 요소에 윤곽부여함으로써 낱말의 의미구조가 밝혀진다는 것이다.

초기 Fillmore의 이론에서는 틀을 낱말의 수집물과 같은 언어적 구성물로 간주하였고 나중에 여러 차례를 거쳐 틀을 인지적인 것으로 재해석하였다. 그 과정에 대하여 김동환(2005:65)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Fillmore(1982:111)에서는 틀을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 개념이 어울리는 전체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식으로 관련된 개념의 체계”로 정의하며, Fillmore(1985:223)에서는 틀을 “지식의 특이한 통합 체제나 체험의 응집력있는 도식화”로 간주한다. 더 최근에 Fillmore&Atkins(1992:75)에서는 틀을 “인지적 구고(또는 틀)[...] 이것에 대한 지식이 낱말들이 기호화하는 개념에 대해 전제된다”라고 간주한다. 더욱이 Lowe, Baker&Fillmore(1997:2)에 따르면, “틀은 정형화된 시나리오-어떤 사건이 발생하며 상태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화자가 기대하는 상황의 많은 자질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틀은 도식화된 형태를 한 어느 정도의 “실재-세계 지식”을 부호화한다.” 이런 Fillmore의 틀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정의를 바탕으로, 틀은 종종 정확하게 형식화될 수 없는 실체나 체험을 언급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실체나 체험에는 인간에게 보편적인 체험, 환경과의 상호작용, 문화적 보편성이 있는데... 이런 여러 정의와 설명은 틀이 언어적 구성물이 아니라 인지적 구성물로 간주함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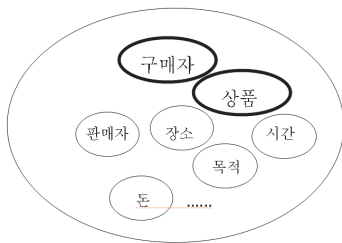
틀 의미론이라면 가장 많이 언급된 예시는 바로 ‘상거래 틀’이다. 이해를 돕자는 의도에서 ‘상거래 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겠다. 틀은 틀 요소로 구성되어 틀 요소 내부에 핵심요소와 비핵심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²⁾ 상거래 틀에서 핵심 요소는 ‘구매자’와 ‘상품’이다. 비핵심요소로 ‘판매자’, ‘장소’, ‘돈’, ‘목적’, ‘시간’, ‘중량단위’ 등이 있다. 어떤 요소가 윤곽부여를 받느냐에 따라 ‘사다’, ‘팔다’, ‘고객’, ‘생일’, ‘백화점’ 등 다양한 언어표현이 관련되어 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2) FrameNet: <https://framenet.icsi.berkeley.edu/fndrupal/luIndex>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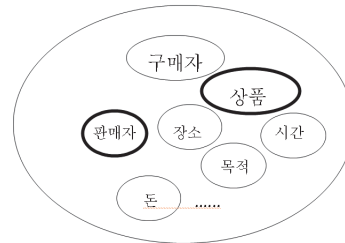


〈그림 1〉 상거래 틀

위 그림에서 만약 ‘구매자’와 ‘상품’에 윤관부여를 한다면 어휘 ‘사다’가 연상될 것이고, ‘판매자’와 ‘상품’에 윤관부여를 한다면 어휘 ‘팔다’가 연상될 것이다. 그림으로 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사다



〈그림 3〉 팔다

이외에 주의해야 할 점은 틀의 기본속성이다. WEN Xu, XIAO Kai-rong(2019:118)에 따르면 틀은 위계성, 원형효과, 역동성, 문화적 차이성 4개의 기본속성이 있다.

첫째, 틀은 수형도와 같이 위계적이다. 상거래 틀을 예로 하면, 구체적인 거래 대상에 따라 상거래 틀 아래 부동산거래 틀, 토지거래 틀, 중고거래 틀 등 다양한 하위틀을 설정할 수 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틀은 틀 요소로 구성되고 틀 요소는 핵심요소와 비핵심요소로 구분된다. 이것이 바로 원형효과³⁾이다. 틀 요소는 자유롭게 틀 내부에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틀의 핵심 특징에 가까울수록 핵심요소가 되고 멀어질수록 비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깝거나 먼다는 것은 그 틀 요소의 출현 빈도와 필요성을 말한다.⁴⁾ 셋째, 역동성이란 사람의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틀 지식도 수정되어 계속 발달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차이성은 똑같은 틀이라도 서로 다른 문화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달리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조식이라는 틀을 예시로 설명하겠다. 중국 북쪽 사람에게 아침밥은 죽, 만두(饅頭),⁵⁾ 채소볶음이고, 한국 사람에게 국, 반찬, 밥이 있어야 한 끼니가 된다.

2.2 틀과 번역

번역과정은 번역자가 ST를 읽어보면서 ST의 언어표현 그리고 언어표현 뒤에 있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통해 틀(ST)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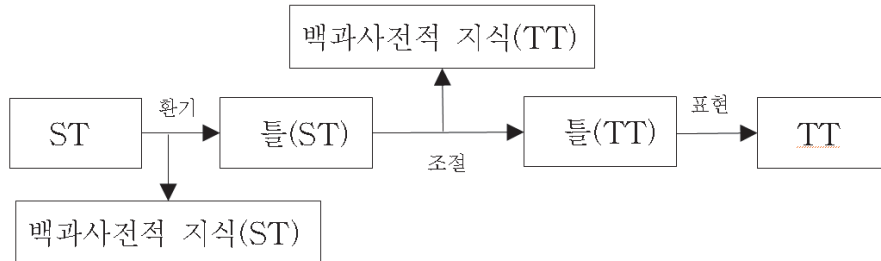
3) 여기에서 ‘원형효과’는 Lakoff, G의 ‘원형효과’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완전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함.

4) 틀 내부의 핵심요소와 비핵심요소의 구분은 본고의 연구대상이 아니므로 여기서 간략히 언급만 하겠다. 자세한 논의는 WEN Xu, XIAO Kai-rong(2019:118) 및 Lawrence W. Barsalou(1992:34) 참조.

5) 한국의 만두와 달리, 중국에서 말한 만두는 속이 없다.

6) 박정운(2013: 39)에서 설명하였듯이 틀은 언어표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틀은 언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인지적 구조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자면 출발어나 도착어의 틀이란 출발어나 도착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구조를

이 환기되어, 다시 도착어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통해 틀(TT)을 환기시켜 도착어의 언어표현으로 TT를 구성한다는 과정이다. 즉, ST의 틀에서 TT의 틀로 인지적 가공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틀 의미론의 시각으로 보면 번역은 언어표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틀을 옮기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번역과정은 틀에 대한 조절로 재정의될 수 있다. WEN Xu, XIAO Kai-rong(2019:120)에서 이 과정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4〉 번역 속의 틀 조절과정)

그리고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틀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출발어에 있는 틀이 도착어에도 있다. 그리고 두 틀이 완벽한 대칭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출발어와 도착어 한쪽에만 틀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즉, 출발어에 있고 도착어에 없거나 출발어에 없고 도착어에 있는 경우이다. 셋째, 출발어에 있는 틀이 도착어에도 있지만 비대칭적이다. 즉, 틀요소나 틀요소의 의미가 다르거나 틀의 위계가 같지 않거나 하는 경우이다.⁸⁾

첫째의 경우에는 출발어에 있는 틀이 도착어에도 있어서 출발어에 상응하는 도착어의 언어표현만 바꾸면 된다. 물론 실제 번역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⁹⁾ 둘째와 셋째의 경우가 현실에 더 가까우며 이때 틀요소를 가감하거나 틀의 위계 등에 대한 조절이나 재창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번역전략으로 WEN Xu&XIAO Kai-rong(2019)에서 틀 내부의 조절, 틀의 위계적인 조절, 틀의 관점에 대한 조절, 틀의 이전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틀 내부에서의 조절이다. 구체적인 번역방법으로 틀요소를 변경, 삭제, 추가 등이 있다. 친구 틀을 예로 하겠다.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윗사람인가 아랫사람인가가 결정되어 한국어의 친구 틀 안에서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만이 틀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나이에 따른 구분이 없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적든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대화를 번역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의미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입장이다. 편의상 위 개념을 출발어의 틀 또는 도착어의 틀로 사용하였다.

7) WEN Xu, XIAO Kai-rong(2019: 120)에서 틀의 환기 및 조절 단계에서 '지식체계(知識系統)'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고에서 일관성 있도록 '백과사전적 지식'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용어 차이일 뿐 의미는 같다.

8) WEN Xu, XIAO Kai-rong(2019: 122)에서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틀의 관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요약하였는데, 첫째는 이상적인 상황이다. 즉, 출발어의 틀과 도착어의 틀을 대응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비이상적인 상황이고 출발어의 틀과 도착어의 틀이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외에 박정운(2013: 39)에서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틀의 관계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출발어의 틀과 동일한 틀이 도착어에도 있다. 둘째, 출발어에 있는 틀이 도착어에는 없다. 셋째, 출발어에는 없는 틀이 도착어에는 있다. 넷째, 출발어의 틀에 상응하는 틀이 도착어에도 있지만 그 두 틀 사이는 차이가 있다.

필자 보기에는 WEN Xu, XIAO Kai-rong(2019)의 분류법은 매우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다소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박정운(2013)의 분류법은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였다. 이에 본고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9) 분류 상으로 보면 이 상황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서 과연 완벽한 틀 대응을 이룰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리고 서술의 편의상 여기서 '언어표현만 바꾸면 된다'고 하였는데 번역과정에서 틀에 대한 조절을 생략하였다.

(1) ST: 老师, 拜拜!

TT1: 선생님, 뽀이뽀이!(?)¹⁰⁾

TT2: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TT1를 보면 중국어의 ‘拜拜’를 그대로 번역하였다. ‘拜拜’는 친구들 사이에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인사말로 ST를 보면 ‘老师(선생님)’을 친구 틀의 틀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T1에서 ‘뽀이뽀이’로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한국어의 ‘선생님’도 친구 틀의 틀요소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TT2에서 ‘안녕히 계세요’로 번역하는 것은 ‘선생님’을 친구 틀이 아닌 윗사람 틀의 틀요소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틀의 위계적인 조절이다. 즉, 출발어의 틀을 도착어에 있는 그 상위틀 또는 하위틀로 조절하는 것이다. 일반적 상위틀일수록 더 포괄적이고 하위틀일수록 더 세분된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산물자원이 풍부하고 생선 명칭도 다양하다. 이와 반에 중국에서 내륙도시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국어의 생선 틀은 중국어¹¹⁾의 생선 틀보다 훨씬 다양한 틀요소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한국어의 생선 명칭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위계적인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셋째, 틀의 관점에 대한 조절이다. WEN Xu(2007:37)에 따르면 틀의 관점은 시점과 초점으로 나눌 수 있다. 시점은 관찰자의 심리적인 관찰노선이고 초점은 관찰의 중심이다. 관점에 대한 조절은 틀이나 틀요소의 선택에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매자’, ‘판매자’, ‘상품’, ‘돈’ 등 상거래의 틀요소에 대한 선택과 윤곽부여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장이 될 수 있다.

(2) 我 花 一百块 买了 一件 衣服

나 쓰다 백위엔 샀다 한 벌 옷

(3) 我 在 商场 买了 一件 衣服

나 있다 백화점 샀다 한 벌 옷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예문(2)에는 ‘나’의 시점에서 ‘돈’과 ‘상품’에 윤곽부여한 것이다. 즉, ‘돈’과 ‘상품’은 관찰의 초점으로 전경화되었고 ‘판매자’는 배경화되었다. 예문(3)에는 시점의 변화가 없지만 ‘장소’와 ‘상품’에 윤곽부여하였다. 즉, ‘장소’와 ‘상품’이 초점으로 전경화되고 ‘판매자’나 ‘돈’은 배경화되었다. 이처럼 번역할 때도 틀요소의 선택을 통한 틀 조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틀의 이전이다. 틀의 이전은 주로 틀이 출발어와 도착어 한쪽에만 존재할 때 사용되어 구체적인 번역방법으로 음역, 직역이 있다. 그리고 도착어에 없는 틀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도착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석 삽입이나, 각주, 미주 등 방법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명절 틀로 중양절(重陽節)이라는 틀이 있다. 음력 9월 9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을의 경치를 감상하는 습관이 있고 또 숫자 ‘9’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도 담겨 있다. 이 명절을 한국어로 옮길 때 아래와 같이 번역할 수 있다.

10) 한국어를 오래 배운 사람으로 이 말은 비문에 가깝다. 그러나 별표 대신 물음표로 표시하는 이유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즉 화용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발화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어서이다.

11) 여기서 말한 ‘중국어의 생선틀’은 중국 내륙도시에 사는 사람

(4) (ST) 重阳节

..(TT) 중국의 전통명절 중양절

위 TT를 보면 한국에 없는 명절 틀인 ‘重陽節’를 그대로 직역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의 전통명절’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하였다.

3. <채식주의자>의 어휘 번역 방법 분석

이 부분에서 <채식주의자> 중국어 번역본 두 권 속의 어휘 번역 양상을 정리하여 원문과 비교하면서 그 번역 방법들을 의미론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았다.

ST인 <채식주의자> 및 TT인 <素食者>, <素食主义者> 총 세 권의 책을 문장 단위로 그 번역 양상을 관찰하였다.¹²⁾ 관찰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ST, TT1, TT2의 작품 정보부터 정리하겠다.

〈표1〉 작품 정보

	작품명	저자/역자	출판사	출판연도
ST	<채식주의자>	한강	창비	2007
TT1	<素食者>	胡椒筒	四川文艺出版社	2021
TT2	<素食主义者>	千日	重庆出版社	2013

2장에서의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WEN Xu, XIAO Kai-rong(2019)에서 제시한 4 가지 번역전략, 틀 내부에서의 조절, 틀의 위계적인 조절, 틀의 관점에 대한 조절, 틀 이전을 예시로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인 번역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추출할 수 있다.

첫째, 틀요소의 가감

둘째, 상위틀이나 하위틀로 조절

셋째, 시점 및 초점 조절

넷째, 직역이나 부연 설명을 덧붙인 직역

<채식주의자> 및 번역본 두 권을 분석하면서 상위틀이나 하위틀로 조절 및 틀 이전 두 가지 번역 방법이 관찰되지 않았다. 먼저, 상위틀이나 하위틀로의 조절은 주로 세분될 수 있는 명사를 번역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번역본에서 명사에 대한 번역은 주로 직역을 선택하였고 번역자의 가공이 많지 않아 이 번역 방법이 관찰되지 못하였다. 또 틀 이전은 TT에 존재하지 않는 ST의 틀을 그대로 옮기는 번역 방법인데 주로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번역할 때 직역이나 부연 설명을 덧붙인 직역을 하는 방식이 있다. 구체적인 어휘로는 문화와 관련된 문화소를 예로 들 수 있다. <素食者>나 <素食主义者>

12) 세 권의 책을 문장단위로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생각보다 방대한 작업이고 세밀한 관찰을 위해 연구대상의 일부분만 분석하였다. 소설집 <채식주의자> 중의 동명 소설 <채식주의자> 전체(9-65쪽) 및 번역본 TT1 <素食者> 중 2-52쪽, TT2 <素食主义者> 중 3-64쪽만 다루겠다.

에서 역시 관찰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장에서 틀요소의 가감, 시점 및 초점 조절 두 가지의 번역전략을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번역본에서 관찰된 어휘와 관련된 번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첫째, 틀요소의 가감

둘째, 틀 초점 조절

셋째, 틀 시점 조절(시간 관련 시점 조절, 공간 관련 시점 조절, 호칭어 관련 시점 조절)

3.1 틀요소의 가감

틀요소에 대한 가감은 출발어와 도착어에 동일한 틀이 있는데 완벽한 대응을 이루지 않을 때 사용된다. 번역본에서 직역이나 부연 설명을 덧붙인 직역이 관찰된다.

(5) ST: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썬 목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채식주의자〉 30쪽)

TT1:摆在我们面前的第一道料理是荡平菜。这是一道用凉粉、香菇和牛肉凉拌的清淡菜肴。

(〈素食者〉 20쪽)

TT2:面前摆放的第一道菜是荡平菜：这是一道将绿豆粉丝和香菇、牛肉等凉拌的清雅菜肴。

(〈素食主义者〉 26쪽)

ST에서 언급한 탕평채는 한국의 궁중요리이고 음식 틀의 틀요소로 볼 수 있다. 음식 틀은 중국어에도 존재하지만 탕평채란 틀요소가 없다. TT1과 TT2는 똑같이 직역의 번역방법을 선택하였고 이것은 중국어의 음식 틀 안으로 탕평채란 틀요소를 추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차이는 TT1은 부연 설명 없이 직역하였고 TT2는 각주를 통해 탕평채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였다.

(6) ST: “요새 사상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군데 가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

(〈채식주의자〉 31쪽)

TT1: “听说是因为四象体质，所以最近才有很多人开始吃素.....我也看了很多医生，想搞清楚自己的体质，可一家一个说法。”

(〈素食者〉 21쪽)

TT2: “最近好像因为四象体质，出现了素食主义者.....我也去过好多地方想弄清自己的体质，可是每去一处都有不同的说法。”

(〈素食主义者〉 27쪽)

TT1과 TT2를 보면 ST의 ‘사상체질’을 그대로 직역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TT1은 각주에서 사상체질의 출처를 밝혔다. ‘사상체질’은 한국의 전통의학 틀과 관련된 어휘인데 중국어의 전통의학 틀 에는 없다. 이것도 틀요소의 추가로 볼 수 있다.

3.2 틀 초점 조절

틀에 대한 초점 조절은 구체적으로 동사와 논항의 관계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7) (ST) “방금 못 봤어? 나 샤워했어. 어디서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녀의 대답은 진지했다.

“.....땀구멍 하나하나에서.”

(〈채식주의자〉 24쪽)

(TT1) “你刚才不是也看到了吗? 我洗过澡了, 哪儿来的味道啊?”

妻子一本正经地回答说:

“.....你的 每一个 毛孔 都 在 散发着 那股 味道。”

너의 하나하나 땀구멍 모두 -고 있다 풍기다 그 냄새

(〈素食者〉 15쪽)

(TT2) “你刚才没看到吗? 我才刚洗完澡, 哪里来的味道呢?”

她一本正经地回答道:

“.....有, 那 味道 会 从 每一个 毛孔中 出来。”

있다 그 냄새 -(으)르 것이다 -에서 하나하나 땀구멍 나오다

(〈素食主义者〉 20쪽)

위 예문은 채식을 선택하게 된 영혜가 남편이 고기 냄새가 나서 섹스를 거부할 때 발생하는 대화이다. 관련된 틀은 냄새 틀이고 틀요소로 냄새 출처, 냄새 등을 설정할 수 있다. ST를 보면 시점은 영혜이고 초점은 ‘땀구멍’, 즉 냄새 출처이다. TT1에서 시점은 여전히 영혜이지만 원문에 나오지 않는 틀요소인 냄새를 보완하여 ‘냄새’ 및 ‘냄새 출처’를 모두 운곽부여하였다. TT2도 마찬가지로 틀요소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TT1과 TT2를 비교해 보면 시점인 영혜의 관찰노선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T1은 냄새 출처부터 냄새까지 관찰하는 순서이고 ‘땀구멍’을 ‘풍기다’의 주어 논항으로 설정하여 ‘냄새’는 ‘풍기다’의 목적어 논항으로 설정하였다. 즉, ‘땀구멍’을 초점에 두었다. TT1과 정반대로 TT2는 냄새부터 냄새 출처로의 순서이며 ‘냄새’가 초점이다. 그래서 ‘나오다’의 주어 논항은 ‘냄새’이다.

(8) ST: 긴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며 다급히 두리번거렸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채식주의자〉 63쪽)

TT1: 经过长长的走廊和电梯口, 我四下张望也没找到妻子。

찾다 아내

(〈素食者〉 51쪽)

TT2: 我经过长长的走廊来到电梯前, 东张西望地寻找着她, 但是始终没有发现她的踪迹。

발견하다 그녀의 모습

(〈素食主义者〉 62쪽)

위 예문은 영혜남편이 사라진 영혜를 찾아다니는 장면이다. ST에서 ‘나’, 즉 영혜남편이 시점이고 ‘아내의 모습’을 초점에 두어 동사 ‘보이다’의 주어논항으로 설정하였다. TT1과 TT2는 시점의 변화가 없지만 ST와 달리 초점은 모두 ‘나’로 설정하였다. ‘나’의 시점에서 ‘나’를 관찰하여 TT1은 ‘내가 아내를 찾지 못했다’, TT2는 ‘내가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로 요약할 수 있다. ‘나’는 동사의 주어논항이고 ‘아내’나 ‘그녀의 모습’은 동사의 목적어논항이 되었다.

3.3 틀 시점 조절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점은 심리적인 관찰노선이고 틀 시점에 대한 조절로 시간 관련 시점 조절, 공간 관련 시점 조절, 호칭어 관련 시점 조절 세 가지가 관찰되었다.

3.3.1 시간 관련 시점 조절

(9) ST: 가족모임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다.

(〈채식주의자〉 40쪽)

TT1: 距离家庭聚会还剩三天。

(〈素食者〉 30쪽)

TT2: 那是家庭聚会前三天的晚上。

(〈素食主义者〉 37쪽)

ST의 ‘가족모임’을 통해 이벤트 틀이 상기된다. 이벤트 틀의 틀요소로 이벤트이름, 시간, 장소, 목적 등을 설정할 수 있다. TT1과 TT2는 ST와 같이 틀요소인 이벤트이름과 시간이 전경화되었다. 그러나 TT1과 TT2의 시점은 다르다.

ST의 시점은 현재이고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¹³⁾ 사흘이 더 지나면 가족모임의 날이다. TT1은 ST와 같이 현재를 시점으로 현재부터 가족모임까지 사흘이 남았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달리 TT2의 시점은 가족모임이고 이를 기준으로 뒤로¹⁴⁾ 사흘 가면 현재이다.

3.3.2 공간 관련 시점 조절

시간 외에 틀 관점의 조절은 공간에도 나타난다.

(10) ST: 물이 나오지 않는 분수가 가까워졌을 때, 웅성거리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채식주의자〉 63쪽)

TT1: 当我走到已经不再喷水的喷泉附近时, 看到一群人熙熙攘攘地聚在一起。

나 분수 사람들

(〈素食者〉 51쪽)

TT2: 当我走到已经不再喷水的喷泉附近的时候, 看到人群乱纷纷地在那里聚成一团。

나 분수 사람들

(〈素食主义者〉 62쪽)

영해를 찾으면서 병원 분수 근처로 간 영해 남편의 서술이고 이동 틀과 관련이 있다. 이동 틀의 틀요소로 이동주체, 목적지, 방향, 노선 등이 있다. TT1, TT2는 틀요소의 선택에 차이가 없고 이동주체인 ‘나’, 목적지 ‘분수’, 이동수단 ‘보행’이 있고 원문에 없는 이동주체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ST와 비교해 보면 TT1과 TT2는 공간에 대한 관찰 순서를 조절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3) 여기서 말하는 ‘앞으로’는 달력 상의 방향이다.

14) 여기서 말하는 ‘뒤로’는 달력상의 방향이다.

ST에서의 공간은 ‘나’의 위치, 분수의 위치, 사람들의 위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분수’가 ‘나’와 가까워질 때 ‘사람들’도 보이게 되었다는 표현은 마치 ‘나’는 그대로 서 있고 ‘분수’와 ‘사람들’이 ‘나’에게 자발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분수’부터 ‘나’를 거쳐 ‘사람들’까지 관찰된 순서이다.

TT1과 TT2는 ‘분수’와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동적인 행위, 즉 걸음으로 ‘분수’까지 걸어가고, 또 ‘나’의 능동적인 행위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었다. 관찰순서는 ‘나’, ‘분수’, ‘사람들’이다.

3.3.3 호칭어 관련 시점 조절

이 외에 호칭어와 관련된 시점 조절도 관찰되었다. 한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등과 같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은 다른 사람을 통해 지칭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보는 시점이 다르다는 뜻이다.

(11) ST: 영혜남편: “아이는.....”

인혜: “지우아빠가 오늘 안 나가고 있어요.”

(〈채식주의자〉 56쪽)

TT1: 英惠丈夫: “孩子呢.....”

仁惠: “你姐夫在家看孩子。”

너의 형부

(〈素食者〉 44쪽)

TT2: 英惠丈夫: “孩子呢?.....”

仁惠: “知友爸爸今天没有出门。”

지우아빠

(〈素食主义者〉 54쪽)

위 예문은 자살 시도를 한 영혜를 간병하느라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낸 인혜와 영혜 남편 사이에서 벌어진 대화이다. ST에서 인혜는 자신의 남편을 지칭할 때 아이를 통해서 ‘지우아빠’라고 칭하였다. 이때 인혜의 심리적인 노선은 자신부터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거쳐 자신의 남편을 관찰하였다고 정리될 수 있다. 이와 달리 TT1에서 인혜는 남편을 지칭할 때 영혜 남편의 시점에서 ‘너의 형부’라고 번역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점 조절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틀 의미론의 시각에서 〈채식주의자〉 및 번역본 두 권의 어휘 번역 방법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인 번역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번역본에서 다양한 틀에 대한 조절이 관찰되지 못한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고 나중에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보다 다양한 틀 조절 현상을 찾아볼 계획이다.

또 틀은 한 언어에 대하여 그 언어 사용자 머리에 저장된 백과사전적인 지식이라 문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채식주의자〉의 분석과정에도 문화소와 관련된 틀 조절 현상이 많고 나중에 틀 의미론과 문화소 번역의 결합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3장에는 예문에 대한 분석이 논리적이지 못한 면이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있으며 향후 더 수정 보완하여 용어의 사용에도 규범에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

■ 참고문헌 ■

- 김규훈(2019), '틀 의미론'의 어휘 교육적 적용-신문 텍스트의 어휘 타당성 탐구를 실제로-, 문법교육 36, 한국문법교육학회, 1-25쪽. Kim Kyoohoon(2019), Lexical Educational Application of "Frame Semantics"-Focused on Practice of Inquiring Lexicon's Validity in Newspaper Text-, Grammar education 36, Korea Grammar Education Circle, pp.1-25
- 김동환(2005),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
- _____ (1999), 틀의미론과 의미구조, 언어과학연구 16, 언어과학회, 73-101쪽. Dong Hwan Kim(1999), Frame semantics and semantics structure,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16, The Linguistics Science Society, pp.73-101
- 김용(2017), 틀의미론 기반의 한국어 동사 교육 연구-상거래 동사 '사다, 팔다'를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 2017(12),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27-244쪽.
- 김중진(2011), 틀 의미론과 코퍼스 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어휘학습 지도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im Joong-jin(2011), A Research on the Effective Vocabulary Teaching through a Frame Semantics Approach and Corpus Studies, Master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데이브다 싱글턴(2000), 배주채 옮김, 『언어의 중심 어휘』, 삼경문화사. David Singleton(2000), Language and the Lexicon: An Introduction, London: Arnold.
- 마릉연(2015), 한국어 유의어 변별 교육-틀 의미론 적용을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9(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43-270쪽. Ma ling yan(2015), A study on teaching of Korean Synonym - Focused on frame semantics, Field Studi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9(1), pp.243-270
- 문미선(2005), 틀의미론과 다의어 번역, 독일어문학 28, 한국독일어문학회, 279-299쪽. Mun, Mi-Sun(2005), Frame-Semantik und Übersetzung der Polysemie, Deutsche sprach-und literaturwissenschaft 28, Koreanische Gesellschaft FUR Deutsche Sprach- Und Literaturwissenschaft, pp.279-299
- 박정운(2013), 틀 지식과 은유의 번역-인지언어학적 접근, 통역과 번역 15(1), 한국통역번역학회, 31-62쪽. Park Jeong-Woon(2013), Translation of frame knowledge and metaphor: a cognitive linguistics approac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5(1), Korean Society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pp.31-62
- 오주영(2010), 틀 의미론을 통한 인지적 의미학습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19,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95-312쪽. Oh Ju-Young(2010), A Study on Cognitive Learning of Meaning through Frame Semantics, Cross-cultural studies 19, Center for Cross-Cultur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pp.295-312
- 이정심(2012), 틀 의미론으로 해석한 중국어 복합어 생성 과정, 中国文学研究 48, 한국중문학회, 273-301쪽. LI Zheng-xin(2012), The Generative process of Compound words based on Frame Semantics in Modern Chinese, Kore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48, The Society of Chinese Literature, pp.273-301
- 이준서(2013), 틀의미론에 입각한 일본어 'Ingestion'동사의 '문화 이미지 프레임' 연구, 일본연구 20, 45-61쪽.
- 임지룡(2006),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1-29쪽. Lim Ji-ryong(2006), The Nature of Meaning from the Cognitive linguistic Viewpoint, Koeran Semantics 21, The Society of Korean Semantics, pp.1-29
- _____ (2010), 어휘의미론과 인지언어학, 한국어학 49, 한국어학회, 1-36쪽. Lim Ji-ryong(2010), Lexical semantics and cognitive Linguistics, Korean Linguistics 49, The Association for Korean Linguistics, pp.1-36
- _____ (2012), 어휘의미론의 흐름과 특성, 한말연구 31, 한말연구학회, 195-227쪽. Lim Ji-ryong(2012), Treatise : Historical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Lexical Semantics, Korean Language Research 31, Korean Language Research Circle, pp.195-227
- 정주리(2000), 동사의 틀 의미 요소 연구-'건강'관련 동사를 중심으로, 한국어내용론 7, 한국어내용학회, 339-360 쪽.
- 황련화(2022), 틀 의미론에 기반한 '먹다'의 의미분석, 중국조선어문 237,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57-66쪽. HUANG Lian-hua(2022), A Semantic Analysis of the Korean Verb "먹다(Eat)" Based on Frame Semantics, Korea Language in China 237, pp.57-66
- 홍정민(2016), 틀 의미론에 기반한 전문 번역 오류 분석-경제/금융 텍스트를 중심으로, 응용언어학 32(1), 한국응용언어학회,

203-235쪽. Jungmin Hong(2016), Analysis of Errors by Graduate Students in Economy/Finance Translation from Frame Semantics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2(1),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pp.203-235

Lawrence W. Barsalou(1992), Frames, concepts, and conceptual. In E. Kittay & A. Lehrer(Eds.), Frames, fields, and contrasts: New essays in semantics and lexical organization(pp.21-74),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文旭, 肖开容(2019), 『认知翻译学』, 北京大学出版社. WEN Xu, XIAO Kai-rong(2019), Cognitive Translatology, Peking University Press.

陈忠平, 白解红(2011), 框架、场景与视角: Fillmore语义理论认知观探源, 外语教学与研究 43(5), 665-675쪽. CHEN Zhong-ping, BAI Jie-hong(2011), Frame, scene and perspective: A look into Fillmore's cognitive approach to meaning,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43(5), pp.665-675

成善祯(2003), 框架语义信息与语用等效, 苏州大学学报 2003(4), 72-74页

邓静(2010), 翻译研究的框架语义学视角评析, 外语教学与研究 42(1), 66-71쪽. DENG Jing(2010), The frame-semantic approach in translation studies: A critical review,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42(1), pp.66-71

马伟林(2007), 框架理论与意义识解, 外语与外语教学 2007(10), 18-21页

文旭(2007), 语义、认知与识解, 外语学刊 2007(06), 35-39页. WEN Xu(2007), Meaning, Cognition and Construal 2007(06), pp. 35-39

肖开容(2013), 知识系统与中国侠文化语际传播——从框架理论看金庸武侠小说英译, 西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3(4), 94-101+175页. XIAO Kai-rong(2013), Knowledge System and Cross-Lingual Transmission of Chinese Martial Arts Culture: A Frame Theoretic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Louis Chas Martial Arts Fictions, Journal of Southwest University(Social Sciences Edition) 2013(04), pp. 94-101+175

肖开容, 文旭(2012), 翻译认知过程研究的新进展, 中国翻译 2012(06), 5-10+127页. XIAO Kai-rong & WEN Xu, Recent Developments in Cognitive Research on Translation Process, Chinese Translators Journal 2012(06), pp.5-10+127

俞晶荷(2008), 框架语义学角度下的翻译研究, 中国俄语教学 27(3), 54-57页

周汶霏, 宁继鸣(2015), 语言学视域下的框架理论, 江西社会科学 2015(3), 102-108页

■ 분석자료 ■

한강(2007), 『채식주의자』, 창비

胡椒筒 译(2021), 『素食者』, 四川文艺出版社

千日 译(2013), 『素食主义者』, 重庆出版社

〈토론〉 “틀 의미론에 기반한 문학번역의 어휘 번역 방법 연구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인선(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호가선생님의 원고 잘 읽었습니다. 저자께서는 틀 의미론에 기반하여 문학번역과정에서의 어휘 번역 방법을 분석하고 하셨습니다. 2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틀이론을 바탕으로 WEN Xu & XIAO Kai-rong(2019)이 정리한 틀 조절에 기반한 번역전략 네 가지를 소개하고 3장에서 소설〈채식주의자〉 한글 원본과 2개의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이 전략들이 적용된 사례들을 추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채식주의자〉번역본에서는 네 가지 전략 중에서 세가지만 발견되어 다양한 틀에 대한 조절이 이뤄지지 않음을 아쉬워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틀 의미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로서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과 글구성에 대한 한두가지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체할까 합니다.

현재의 이 글은 저자가 틀이론을 바탕으로 문학번역 어휘번역의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시작글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이는 문학번역의 양상들을 기존의 정리된 번역전략에 맞춰 분석하고 있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인 것으로 사료되지만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착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자께서는 4페이지에서 WEN Xu & XIAO Kai-rong(2019)의 번역전략을 소개하면서 틀 내부의 조절, 틀의 위계적인 조절, 틀의 관점에 대한 조절, 틀의 이전 등을 소개하고 6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인 번역방법으로 첫째 틀요소의 가감, 둘째 상위 틀이나 하위 틀로 조절, 셋째 시점 및 초점 조절, 넷째 직역이나 부연 설명을 덧붙인 직역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서 〈채식주의자〉번역본에서는 틀요소의 가감, 틀 초점 조절, 틀 시점 조절 등 3가지 양상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초점과 시점 조절이 하나의 전략에서 두개로 나뉘어 진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어떻게 보면 2가지 전략만 확인되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긴 장편소설에서조차 다양한 번역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한가지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틀 시점 조절과 틀 초점 조절이 번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번역자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번역양상이 다른 이유와 어떤 구조가 더 적절한 번역인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면 번역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구성과 관련하여 첫 장에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틀 의미론의 시각으로 재정의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연구의 목적에 해당되기보다 결론부분으로 들어가야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장 시작부분에서 “〈채식주의자〉 및 번역문 두 권을 분석하면서 상위 틀이나 하위 틀로 조절 및 틀 이전 두가지 번역방법이 관찰되지 않았

다... "로 시작된 전체 내용도 결론 부분으로 가져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몇 오타자도 수정했으면 합니다.

1페이지 2.1 그러다(그러나), 2페이지 김동환 인용문에서 구고(구조), 맨 아래 단락에 윤관부여(윤곽부여)등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하여 순차통역 수업 방안 제시

-한배 순차통역 수업 중심으로-

부티투안(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세계에서 통역교육은 2차 세계대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Pym, 2010-재인용). 한국에서도 통역교육은 40여년 전부터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의 설립으로 시작하였으며, 전문 통역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석사과정으로 통역교육을 시작하였다. 2년간의 교육과정에서 통역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언어 능력 및 통역 능력에 중점을 뒀다. 2000년 말에는 학부과정에서도 통역수업이 개설되어 학부생도 통역교육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이 통역교육을 마치고 현장에서 통역업무를 실행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므로, 지난 40여년 동안 많은 교수자들은 사회에 필요한 전문통역사를 배출하기 위해 효과적인 통역 강의 방안 연구에 열의를 기울여왔다.

통번역학자들은 통역을 통역방식에 따라 ‘동시통역’, ‘순차통역’, ‘수행통역’, ‘위스퍼링’으로 크게 나눈다. 동시통역은 통역의 대상인 연사의 발화와 실제 통역사의 발화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서 두 발화 사이에 시차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통역 방식이다. 순차통역은 통역의 대상인 연사의 발화가 일정시간 진행된 다음, 이를 청취한 통역사가 해당 분량을 통역하고 이를 반복하여 연사와 통역사가 교대로 순차적으로 발화하는 통역방식이다. 수행통역은 통역대상인 연사의 일정에 따라 통역사가 연사와 같이 이동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통역을 제공하는 통역방식이다. 위스퍼링은 ‘동시통역’과 비슷하지만 통역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통역사용자의 지근거리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동시에 통역을 하는 방식이다(정호정, 2018:183-184). 이러한 통역업무를 수행하려면 통역사는 언어 능력 외에 순발력이 필요하다. 즉, 통역사가 연사의 발화를 짧은 시간에 듣고 이해하고 통역을 해야 한다. 높은 품질의 통역 결과물을 생산하여 제공하기 위해 통역사는 음운인식, 통사분석, 텍스트 분석, 맥락 파악, 어휘 분석 및 선택, 문장 구성, 조음 등 전 단계를 걸쳐 수많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 짧은 발화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출발어 발화는 한번만 제시되며, 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역해야 한다(Pochhacker, 2004:11)¹⁾. 이 때문에 전문 통역사를 양성하여 배출하기 위해 통역수업은 단순 지식 전수나 통역학에 대한 학문적 소양 함양도 아닌 실제적 통역 수행을 가능케 하도록 실무 기술의 연마를 목표로 삼는다(곽중철·홍설영, 2012:88).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소 통업수업은 통역실습을 위주로 하는데 통역 수행 전에 준비 차원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학생의 통역수행과 그 뒤에 통역에 대한 피드백이다. 즉, 연설문을 준비한 연사가 해설을 마친 후 집단 브레인스토밍의 형태로 내용에 대해 예상을 하며, 실제 연설문을 청취하고, 자원하거나 호명된 학생이 청취한 부분에 대해 실제로 통역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통역의 결과물에 대해 동료 학생 간의 비평이 이어지는 형식은 대개의 통역 수업에서 반복되는 전형화 된 수순이다(곽중철·홍설영, 2012:88).

1) 허지은, 「통역 수업 학습자 불안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제17권1호, 서울: 한국번역학회 2016, 171쪽 재인용.

학부 통역수업과 달리 통번역대학원에는 전문통역사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입학하게 되며, 전문통역사의 양성을 위한 통역훈련이 집중하게 실시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미 통역할 언어와 어느 정도 배경지식을 갖춰야 한다. 전문통역사가 통역할 양대언어 구사력, 지식기반, 통역·번역 방법론에 대한 지식, 양대문화중개능력²⁾을 크게 4가지를 갖춰야하기 때문에 이를 하기 위해 통역교육과정에서 수강생의 능력 훈련에 역점을 둔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서 보면 올해는 양국가 간에 수교가 이루어진지 30주년이 되며, 30년 동안에 많은 분야에서 교류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해, 세계 우호관계 중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이 발전 성과에서 한국어-베트남어를 전수나 전이하는 통역·번역사의 중요한 역할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³⁾.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발전되며, 한국은 베트남의 전략적인 파트너로 문화, 언어를 기초로 하여 사회, 경제, 기술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베 통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베 통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통역에 관한 수업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도 통역교육의 중요성을 역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많은 대학의 외국어학과나 통번역학과의 학부 및 통번역대학원에서 통역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한베 통역 수업을 하는 곳은 아직 많지 않다. 현재 한베 통역 수업은 몇 개의 외국어대학교의 베트남어학과나 학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베트남에서의 한국어학과에서 이루어지므로 한베 통역수업모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또는 한베 순차통역을 비롯한 통역수업의 많은 순차통역 강의의 계획서를 보면, 통역 강의를 맡은 교강사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 혹은 통역 실무 경력을 토대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순차통역을 훈련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강의의 형태와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모범이 될 만한 수업 모델 또한 없다.

필자가 학습자들의 순차통역의 원활한 한베 통역 실무를 돕기 위해 효과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다양한 주제와 상황으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순차통역 수업 모형화 시켜 한베 순차통역수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한베 순차통역교육 현황

베트남의 호치민 국가 주석은 통역·번역사에게 ‘통역·번역을 잘 하기 위해 외국어를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어도 잘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다⁴⁾. 즉, 통역사가 외국어를 잘해도 모국어 구사능력이 좋지 않으면 통역 실무를 하기에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에는 통번역대학원이 따로 없어서 다수의 대학교 한국어학과는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이 아닌 일반 통역수업을 실시한다. 또는 통역교수법은 통역 능력이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역수업에 듣기와 말하기 교수 내용과 방법에 적용한다. 따라서 한국어를 듣고 말하기 연습하는 것으로 통역실습을 시킨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면서 통역수업까지 운영하는 것은 수강생들이 모국어인 베트남어 능력을 유지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 있는 반면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이 더 고급스러운 한국어 구사력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국에 유학하러 와서 한국어를 계속 배우거나 통번역에 관련된 학과에 진학한다.

2) Kußmaul(1995)과 Nord(1991, 1995, 1996)는 통역사/번역사의 요건은 ① 양대언어 구사력 ② 지식기반 ③ 통역·번역방법론에 대한 지식 ④ 양대문화중개능력이다. (정호정, 2018:49).

3) Dr. Le Dang Hoan(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 교수), 「베트남 한국어 통·번역 교육현황과 한국 문학 작품 번역 실제」, 『한국 문화 기술통권』, 제9호, 2016, 158쪽.

4) Dr. Le Dang Hoan(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 교수), 「베트남 한국어 통·번역 교육현황과 한국 문학 작품 번역 실제」, 『한국 문화 기술통권』, 제9호, 2016, 159쪽.

그러나 한국에서도 한베 통번역교육을 하는 대학교가 많지 않아 베트남어학과에서 통역수업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한 대학교대학원에서만 한국어-베트남어 순차통역 수업으로 매주 약 14시간을 사용하지만 그중, 한베 순차통역 수업으로는 매주 4시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한베 순차통역 강의 계획서를 보면 다수의 교강사들이 자신의 경험했거나 실제 통역 실무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주제별로 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3. 순차통역 교육과 수업 설계

3.1 순차통역 교육

전문통역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순차통역 수업은 가장 기본적인 수업이며 통역 수요 중에도 가장 일반적 통역서비스이므로 통역교육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순차 통역은 발언자의 연설 혹은 스피치를 자신이 발언하듯, 1인칭 시점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며, 대규모의 행사보다는 주로 청중의 수가 제한된 행사와 미팅, 기자회견, 강연회, 세미나, 회담, 인터뷰 등에 관련하는 통역방식이다. 순차통역사는 통역할 양국의 언어를 이해하고 발언자의 속도에 맞춰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양국의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이 요청된다. 순차통역수업은 순차통역사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한다. 따라서 순차통역수업은 주제 준비, 용어 준비와 실제상황을 재현하여 교육과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순차통역 교육 연구를 살펴보면 광중철·홍설영(2012)은 협력학습을 중심으로 순차통역 강의 방식을 제시하였고, 이나현(2017)은 플립러닝과 협력학습 중심으로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협력학습은 집단 브레인스토밍⁵⁾과 학생 동료 평가를 중심으로 피드백 공유의 학습 유형과 방식이다. 즉, 통역의 성공적인 수행 및 통역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수업 참여자 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공하며 공유토록 하는 것이다. 플립러닝은 수업 시간에 교수자의 강의를 듣고 수업이 끝난 후 집에서 과제를 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반대로 학생들이 수업 전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에는 연습한 강의를 바탕으로 과제, 토론, 문제 풀이 등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다. 두 수업 방식의 공통점은 협력학습활동이며, 브레인스토밍과 동료 평가를 통해 통역 준비 능력과 통역실습 결과물 품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피드백 제시의 주체는 학생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학습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의 제시한다면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협력적 상황을 수반하는 동료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사 간의 모종의 사회적 계약과 같아서 반드시 이 상황만으로 학습자들 간에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촉발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광중철·홍설영, 2012:91).

필자는 한베 순차 통역 교육과정에서 현재까지 모형화된 수업모델이 없으므로 다른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수업 방식의 장단점, 학생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해 한베 순차통역 수업 방안을 만들어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였다.

3.2 미디어를 활용하여 수업 설계

필자는 통번역대학원에서 1학년 20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베 순차통역 수업을 진행한다. 1년간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순차통역에 대한 기초지식,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과 전략을 학습하고, 순차통역수업에 필요한 정신집중, 기억력 증진, 노트테이킹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한베 통번역 석사과정 수업으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베트남어를 잘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언어 능력 편차

5)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회의기법이다.

도 존재한다.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 한국기업에서 통·번역사로 일하다가 진학한 학생도 있고, 대학교에서 한국어와 무관한 학과에 다니다가 한국어 연수하고 나서 진학한 학생도 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도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언어능력도 기반지식이나 주제지식도 다양하며 편차도 상당히 크다. 특히 이들은 통번역에 대해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통역하게 될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에 대응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 자료를 정리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그룹이 아닌 개인별로 한 문장씩으로 나눠서 통역연습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모범답안을 만들어 실습하도록 하였다.

3.2.1 수업 준비

1학년 한배 순차통역 수업은 쉬운 내용에서 점점 어려운 내용까지 담아있는 출발어인 한국어의 동영상을 선정하고 수업자료로 활용한다. 수업은 매주 1회에 2시간씩 총 16주로 진행된다. 수업 첫 시간에 개개인의 학생들의 언어 배경을 조사하고 토론을 통해 수업 방식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통역수업은 당시 화제가 되는 이슈 위주로 주제를 잡지만, 실제 통역 경험이 없어 긴장하는 학생들을 위해 큰 범위의 주제로 상황에 따라 교육 1주 전에 미리 정한다. 교수자가 미디어를 통해 순차통역의 상황과 유사한 연설문이나 뉴스 동영상 또는 드라마 장면을 선택하여 PPT 파일로 한 문장씩으로 나눠 준비하여 통역 실습하도록 한다.

〈표 1〉 16주 한배 순차 통역 수업 주제

주차	한배 순차통역 1
1주차	언어 능력 텍스트, 수업방식 소개
2주차	강연 통역(드라마 장면)
3주차	사회 1(뉴스-코로나19)
4주차	사회 2(뉴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5주차	문화/예술1(뉴스나 드라마 장면)
6주차	문화/예술2 (뉴스나 드라마 장면)
7주차	경제(뉴스)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정치/외교 1 (뉴스)
10주차	정치/외교 2 (연설문+ 동영상)
11주차	금융/경영 (뉴스-은행, 금리)
12주차	의료(병원-드라마 장면)
13주차	환경(뉴스)
14주차	정보통신(드라마 장면)

15주차	국제관계/안보(드라마 장면)
16주차	기말고사

3.2.2 수업 시간

교수자는 수업 전에 학습할 주제만 정하고,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찾아 텍스트와 통역 실습할 PPT 파일을 준비한다. 실제 순차통역 상황에서 통역자료는 다수 제공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업자료인 텍스트와 동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역할 주제에 관련 어휘, 표현 등 준비하기 어렵고 긴장감도 가질 수 있다. 그 부분을 고려해 통역실습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3~5분 정도 된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틀어주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단어를 알려 준다. 또는 통역할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에 통역 연습을 시작한다. 자원하여 먼저 시작한 학생이 첫 번째 문장을 듣고 바로 베트남어로 통역한다. 그 후에, 다른 학생들은 통역한 학생의 문장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여 더 나은 문장을 만든다.

실제 순차통역은 동시통역과 다르게 연사의 발화를 미리 알지 못한 경우가 많고, 연사의 발화는 한 문장씩도 아닌 두 세 문장씩 묶어 통역하게 된다. 순차통역 실습할 때 텍스트를 한 문장씩으로 나눠 준비하였으나 긴 문장이 존재할 수 있으며, 어느 분야의 전문용어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통역단위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통역사가 발화내용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해 노트테이킹 기술을 키울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통역 실습할 때, 동영상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을 병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동영상을 듣고 바로 베트남어로 통역하지 않고 한국어로 따라 말한 후에 통역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편차가 있으므로 연사의 발화를 듣고 이해하는 데 시간의 차이가 생겨 통역 시간이 달라진다. 또는 출발어 문장의 길이에 따라 목적어로 통역할 때도 시간이 달라진다.

수업시간의 진행은 2시간으로 하며, 5분 동안 해당 동영상을 청취하고 통역수업을 진행하고 중간에 10분의 쉬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 중 학생들은 번갈아 한 문장씩 통역한 것을 서로 피드백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수업 종료 전에 교수자가 그 내용들을 정리한다.

3.2.3 수업 후

3~5분량의 한 주제의 동영상을 청취하면서 한 문장씩 나눠 통역연습을 한 것을 정리하여 완성된 모범 답안의 문장을 만든다. 순차통역수업으로서의 특징은 듣고 바로 통역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듣기능력, 어휘력, 순발력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통역한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 노트테이킹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업 후에는 학생들의 노트테이킹을 교수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3.2.4 평가

평가는 한 학기에 2번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시행한다. 매주 학습한 자료를 합성하여 2개 또는 3개의 시험문제를

시험문제1, 시험문제2 등 만든 것을 학생들은 무작위로 뽑아 해당 시험문제의 동영상과 듣고 통역한 것을 녹음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뽑아 시험을 실시하게 하는 이유는 통역해야 하는 순간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순발력을 확인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3.3 실제 수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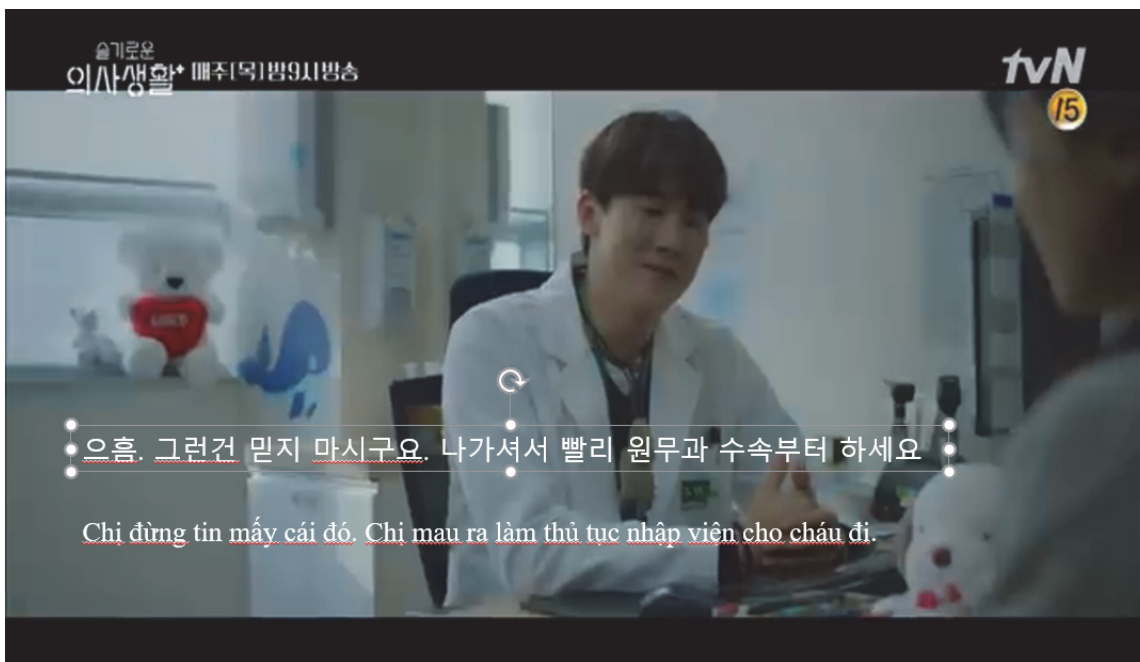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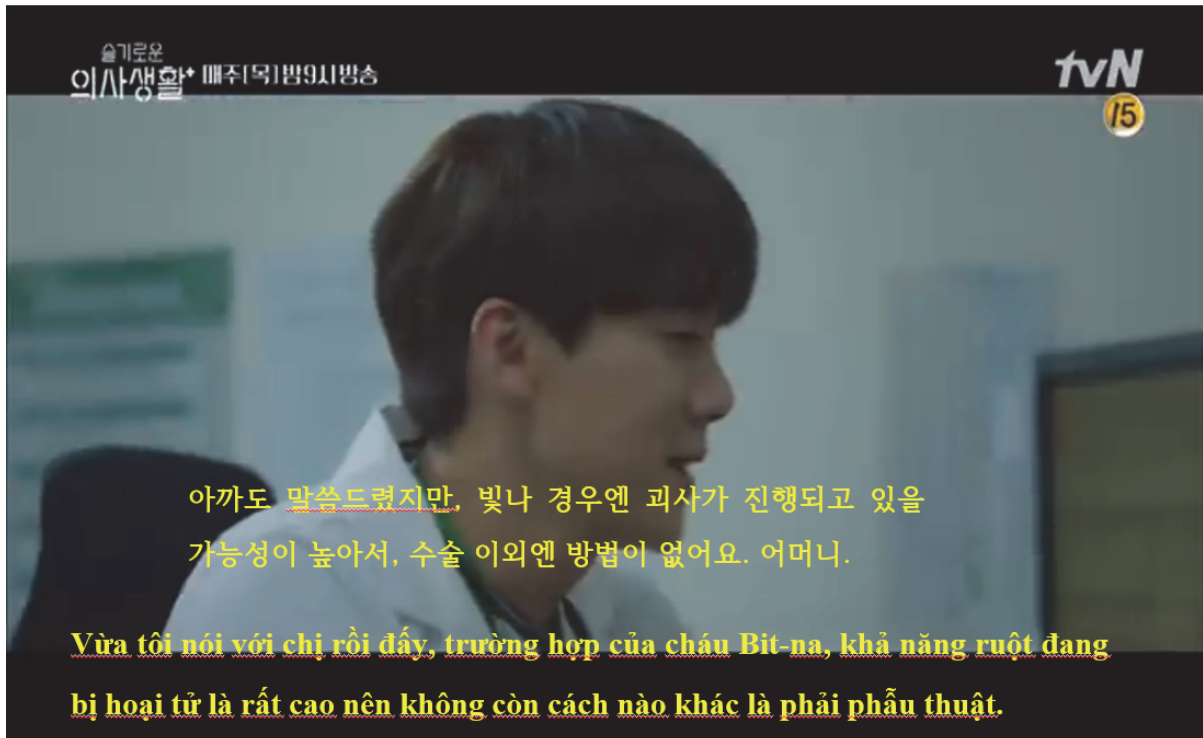
한배 순차통역수업의 전체 설계 내용을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일부분의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업 주제는 병원에서의 진료과정을 주제로 정하고, 관련된 인기 드라마의 3분 분량의 한 장면으로 설정했다. 드라마 장면에서는 의사와 어린이 환자보호자 간에 대화하는 중, 학생들은 두 사람 간의 대화내용을 통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통역하는 학생은 동영상을 듣고 따라 말한 후 베트남어로 통역한다. 다른 학생도 같이 듣고 통역 내용도 듣고 피드백 한다. 베트남인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듣기가 어려워 2~3번 들어야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연속해도 못 듣는 경우에는 동료 학생이나 교수자가 도와주거나 원본 텍스트를 공개해 준다.

순차 통역 I Dịch đuổi

상황(Tình huống) : 진료(소아과)
사용자료 : 슬거로운 의사생활 Cuộc đời bác sĩ

순차통역 연습 Luyện dịch đuổi



- 의사: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대성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을 수술 안 하고 시술로 치료한다고 하더라고요.
- 환자보호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나 경우엔 괴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수술 이외엔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 환자보호자: 확실한 거죠? 선생님. 수술해도 되는 거죠.
- 의사: 수술해도 되는 게 아니라 수술하셔야 됩니다.
- 환자보호자: 그래도 인터넷에 보니까, 수술하면 애 키가 안 자란다고 그러던데...
- 의사: 으흠. 그런건 믿지 마시구요. 나가셔서 빨리 원무과 수속부터 하세요.
- 환자보호자: 아-하. 알겠습니다. 저 그럼 선생님만 믿고 저희 빛나...

의사: 빛나 병실은 났나요? 병동에 전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통역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병원과 관련 전문용어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장중첩증’이라는 병 이름도 알아야 통역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통역은 순차통역이자 대화통역이다. 즉,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통역임으로 통역사가 소통 중심의 통역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통역사가 의사와 어린이 환자보호자 간에 정보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뉘앙스까지 이해하고 언어를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간단한 내용의 동영상 보여주며 학생들이 한 문장씩 병원에서 통역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통역을 진행한다. 전문용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역 연습하는 데 어색한 표현 외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 수업자료는 미리 받지 않았지만, 배우들의 표정, 말투 등으로 학생들이 통역할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한다. 쉬운 동영상으로 수업 시작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증진시켜 같은 주제의 더 어려운 동영상과 텍스트를 연습하도록 한다.

수업 후에 학생들은 노트이킹을 제출하고, 교수자가 확인하고,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다시 피드백을 제공한다.

4. 수업운영에 대한 평가

필자는 이 수업을 1년간에 진행하였으나 실제 강의시간은 한 학기밖에 없었으므로 수업운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수업 방법으로 학생들의 순차통역 능력에 대한 전체적으로 파악하며, 이들의 수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효과적인 수업을 개선하도록 노력에 기울어진다.

5. 결론

■ 참고문헌 ■

- 정호정(2018), 제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한국문화서, p49.
- 곽중철·홍설영, 「통번역대학원의 통역수업 모형-협력학습 중심의 순차통역 강의 연구」, 『통번역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2, p85~p114.
- Le Dang Hoan, 「베트남 한국어 통·번역 교육현황과 한국 문학 작품 번역 실제」, 『한국 문화 기술통권』, 제9호, 2016, p158.
- 이나현, 「학부 순차통역 수업 모형 제안」, 중국어문학연구회, 제103호, 2017, p219 - 235.
- 이주현, 「전문순차통역 수업 설계 : 실행연구」, 『통역과 번역』, 22권 2호, 한국통역번역학회, 2020, p105~p128.
- 최경인, 「독일어 학부통역수업의 교수방안 제안* - 핵심역량과 통역능력의 적용사례 연」, 한국독일어학회, 2016, p345~p365.
- 허지은, 「통역 수업 학습자 불안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제17권1호, 서울: 한국번역학회, 2016, p171.

〈토론〉 “미디어를 활용하여 순차통역 수업 방안 제시
-한베 순차통역 수업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곽영(남서울대학교)

이 논문은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 통역 교육에서 구체적인 순차통역 교수학습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연구 분야의 경우, 이론적인 연구나 실증적인 연구는 물론 통·번역 교육 연구에 있어서도 언어조합과 언어조합방향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논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세계적으로 통역 교육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을뿐더러 한베 통역 교육에 대한 연구도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언어로서의 한베 통역 교육 연구, 구체적인 통역 교육 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련된 논의를 제공하고 있는 이 논문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의 내용이 주로 수업 설계와 수업 운영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연구 내용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BA방향의 한베 통역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순차통역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이라 함은 결국 일련의 학습 과정이나 훈련 과정을 거쳐 학습자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집니다. 한베 순차통역을 원활히 수행해 내는 데에 있어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순차통역 교육에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Kußmaul과 Nord가 제시한 양대언어 구사력, 지식기반, 방법론에 대한 지식, 양대문화중개능력 외에 순발력 등도 언급했지만 이는 전문통역사가 갖춰야 할 능력이며 아직 학습 단계에 있는 학습자의 경우, 당장 개발되어야 할 능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B언어 이해능력, 기억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첫 번째 소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교수학습의 목표를 선행 연구나 BA순차통역 능력에 대한 논의에서 먼저 이끌어 내야 하는데, 목표에 대한 설정 없이 교수학습의 내용이나 방법,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논문에서 두 가지 평가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학습자에 대한 평가이며, 하나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평가입니다. 학습자 평가의 경우, 해당 평가 방식을 선정하게 된 이유, 평가 결과, 학습자의 순차통역 능력이 향상됐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테스트한다면 학습자의 순발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평가는 이 연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유의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습자 설문조사나 인터뷰, 만족도 조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베트남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반 통역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일반적으로 BA방향의 순차통역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함께 다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공부할 기회를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이 논문을 보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번역 교육을 위한 학습자 오류 분석

-언어적 오류를 중심으로-

염선화(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인공지능 시대에 도래와 함께 번역사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따라서 전문 통번역대학원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의 학부에서도 통번역 전공이나 통번역 과정을 개설하였다. 들여다 보면 ‘통번역 능력을 갖춘 국제전문가’, ‘통번역사’, ‘문학번역가와 실용번역가’, ‘영한/한영 통번역 전문가 양성’ 등이 교육 목표이다.(이향 2016) 다시 말해, 이 모든 과정이 전문 통번역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그럼 일반인을 위한 통번역과정은 없을까? 통번역과정은 미래의 통번역사들만 필요한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3급부터 통번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한국에서 6급¹⁾을 취득한 다음에 진학을 하지 않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이나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통번역 관련 업무를 병행하게 되는데 통번역 실력과 지식이 부족해 난항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런 학습자들을 위한 통번역 과정은 학부와 대학원 아닌 기관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통번역과정이 이런 학습자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한국어 능력 강화와 통번역 실력배양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통번역 교육과 통번역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성질을 모두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학부나 대학원에서 통번역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와 달리 통번역에서 요구되는 언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번역 실습에서 많은 오류를 낳고 있다. 또한 번역 행위에 있어 언어적 지식은 필요로 하는 기본 지식이자 중요한 소요이기도 하다.

성초림 외(2001)에서 번역 교육 현장에서의 번역물 품질 평가를 위해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번역 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이 외국어 교육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번역물의 품질을 평가할 때 그 목적에 따라 총괄적평가와 형성성 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번역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습득하는 데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후자에 속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언어적 오류가 많은 번역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연구범위를 언어적 오류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 학습자들의 번역오류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번역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항목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라며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과정 기초과정에서 다른 과목 교사들이 학습자들의 번역실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본 연구에서의 6급은 TOPIK 6급을 포함한 많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설정한 가장 높은 등급이다.

2)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통번역 과정을 수강한 중국인 학습자가 세 학기 동안 제출한 중한 번역 과제이다. 총 8편의 중한 번역 과제는 2인 1조로 완성했으며 수강 인원의 변동으로 하나의 원문 텍스트에서 3-4편의 번역 텍스트가 생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33편의 중한 번역 텍스트를 확보해 연구 자료로 삼았다. 텍스트는 인문, 과학, 정치, 의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정보성이 강한 설명문이나 기사다.

과정 끝까지 참여한 대상자는 총 9명으로 학부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전공은 다양했으나 모두 인문 계열 전공이었다. 한국어 능력은 TOPIK 5급인 학생 4명을 제외한 다른 학생은 모두 6급이나 6급 이상이다. 모든 학생의 모국어가 중국어지만 이 중 영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중 언어 학습자도 1명 있었다. 학생들이 이 과정을 수강한 목적은 다양하지만 번역 실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욕구는 같았다.

2.2. 분류기준

오류분석의 기준과 유형은 연구자마다 다르고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번역오류는 번역평가의 일환으로 주로 번역평가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번역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은 SICAL, CTIC, GTS, J2450, TES 가 있다.(장혜선 2014) SICAL은 언어적 오류와 전달적 오류로 나눈 후 다시 심각한 오류와 사소한 오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CTIC,도 언어적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GTS,는 앞의 두 모델의 평가항목에 TT의 텍스트 측면도 추가하여 번역물을 평가한다. J2450는 전문용어 오류, 의미 오류, 누락, 구조적 오류, 맞춤법, 문정부호 오류와 기타오류 등 7 가지 범주로 나누어 오류 정도에 따라 중대한 오류와 사소한 오류로 점수를 매긴다. TES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모델과 다르게 영일 번역물을 평가하는 모델이다. 장혜선 (2014) 에 의하면 TES모델이 현존 평가 모델 중 가장 세분화한 모델이며 9개의 범주로 오류를 분류하였다.³⁾ 이 모델들의 평가항목 중 언어적 측면의 오류는 도착어가 영어 혹은 일본어인 관계로 본 연구에 적용하기 어려워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오류분석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언어적 오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어휘적 오류	어휘 선택
	연어
문법적 오류	조사
	어미
	시제
	피동, 사동
	문장의 호응 관계

3) TES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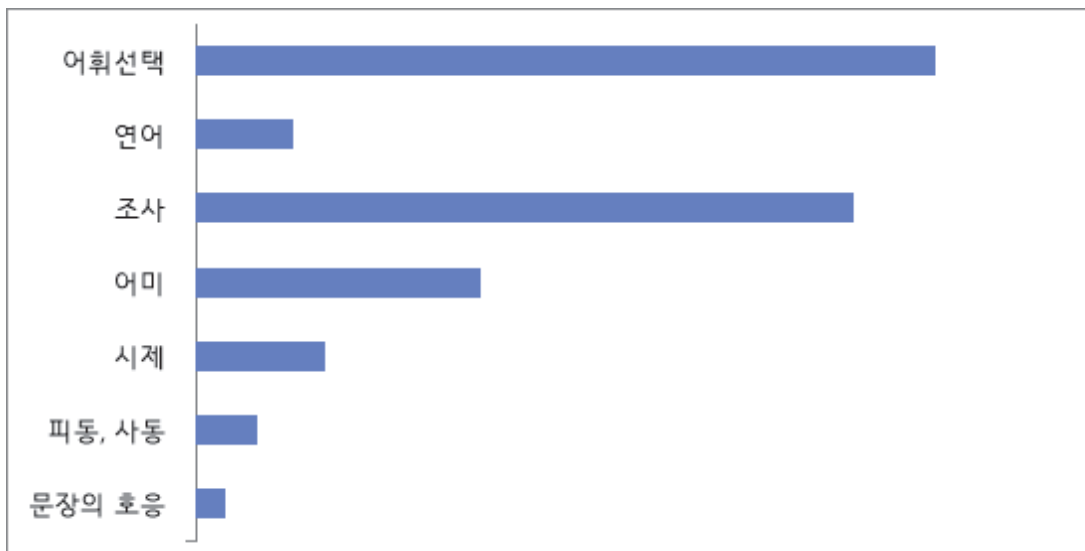
1. 문법 2. 표기법 3. 부자연스러운 영어 4. 의미 5. 테크니컬상의 문제 등 6. 부적절한 동사의 사용 7. 용어 8. 불통일 9. 스타일 가이드

이 분류에서 조사와 어미는 문법 오류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연어 오류는 어휘적 연어오류만 다룬다. 즉 조사 오류로 인한 연어 오류는 문법 오류로 보고 연어 오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어휘 선택 오류는 연어 관계가 없는 명사, 부사, 관용어 등을 적절성으로 판단되는 오류이다.

3. 연구결과

약 600문장의 어휘와 문법 오류는 총 681개이다. 이 중 어휘 선택 오류가 252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중국어로 된 출발어 텍스트와 상대적으로 낮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초래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 다음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조사 오류이다. 조사 오류 중 격조사, 보조사의 오류 수가 비슷했고 접속 조사의 오류는 적었다. 세 번째로 많은 오류는 어미 오류인데 이 중 연결어미보다 전성어미 오류가 더 많았다. 이어 오류 수의 순서로 시제 오류, 연어 오류, 피동·사동 오류, 문장의 호응 관계에서 나타난 오류다.

〈표 1〉 언어적 오류 비율



3.1. 어휘적 오류

어휘 선택의 오류는 고유명사, 형용사, 동사 등 여러 품사의 선택에서 오류가 있었고 한자어의 영향으로 어색한 한국어 표현도 많이 있었다. 또 원문에서 사용된 중국어 전문용어를 한국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적절한 어휘로 번역하지 못한 오류도 있다.

이어서 오류 양상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다.⁴⁾

4) 오류를 살펴보기 위해 제시된 예시는 해당 층위에서의 오류만 논하고 기타 오류는 논하지 않는다.

3.1.1 어휘의 선택

- ㄱ. ST. 主席先生, 各位同事
 TT'. 주석님, 동료여러분,
 TT. 의장님, 동료여러분,

TT'에서 사용된 “주석님”은 한자어인 “主席”의 영향으로 나타난 오류이다.

- ㄴ. ST. 在英國, 每年有大約440件兇器被沒收。
 TT'. 영국에서 매년 평균 약 440 건의 흉기가 압수된다.
 TT. 국에서 매년 평균 약 440 개의 흉기가 압수된다.

(ㄴ)에 오류는 흉기를 세는 한국어 단위 명사 “개”에 해당되는 중국어 수량사가 한자 “件(건)”이기 때문에 모국어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다.

3.1.2 연어 오류

- ㄱ. ST. 孩子們可以在照顧弱小生命的過程中學會同情。
 TT'. 아기들은 약소한 생명을 돌보는 과정에서 동정심을 배울 수 있다.
 TT. 아기들은 연약한 생명을 돌보는 과정에서 동정심을 배울 수 있다.

예문에서 번역자가 생명을 수식하기 위해 ‘약하고 작다’란 뜻을 가진 “약소하다”를 선택했으나 이 단어는 “생명”과 연어 관계가 없어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다.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원문 “弱小”의 영향일 것이고 또 하나는 번역자가 한국어 “약소”에 대한 부족한 이해일 것이다.

3.2. 문법적 오류

3.2.1 조사 오류

- ㄱ. ST. 一直在反省自己犯下的罪。
 TT'. 늘 자신의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있었다.
 TT. 늘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있었다.

“이”는 주격 조사로 “저지르다”의 주체를 말하고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자신의 죄”와 “저지른 죄” 모두 “的(의, 적)”가 수식어와 명사 사이에서 연결해준다. 따라서 이 또한 모국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오류로 볼 수 있다.

3.2.2 어미 오류

- ㄱ. 남북이 통일한 후에 우리는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 7500 만 이구를 가진 대국이 될 것이다.
- ㄴ. 남쪽에 위치하는 향일암에 가서 아름답은 일출을 볼 수 있다.

(ㄴ)은 앞 문장과 뒤 문장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하나”가 구어체 표현으로 문어체인 “하지만”으로 바뀌어야 하는 예시다.

(ㄴ)의 “위치하다”란 동사가 “동사어간 + 은/ㄴ”인 형식으로 관형사형이 되어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 규칙은 받침이 없을 때 “위치한-”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이러한 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오류로 볼 수 있다.

3.2.3 시제 오류

- ㄱ. ST. 父母会送孩子们小狗、小金鱼等礼物。
TT'. 부모는 아이들에게 강아지, 금붕어와 같은 동물을 선물해 줄 것이다.
TT. 부모는 아이들에게 강아지, 금붕어와 같은 동물을 선물해 준다.

TT'와 TT를 보면 바로 하나는 미래시제이고 하나는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원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원문 중 미래 시제로 쓰이는 “會”가 현재 시제에서도 쓰인다는 것을 학습자가 인지를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3.2.4 피동·사동 오류

- ㄱ. 오랜 시간에 거쳐서 경험을 계속 쌓이고 상당한 기초를 닦을 수 있다.
- ㄴ. 폐막식이 열렸다.
 폐막식을 열었다.

(ㄱ)“쌓이다”는 ‘쌓다’의 피동이므로 앞에 있는 “경험”의 조사를 “이”로 바꾸거나 타동사인 “쌓다”로 쓰는 방안도 있다. (ㄴ)도 마찬가지로 피동 형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다.

3.2.5 문장 호응 오류

- ㄱ. 대부분 한국 매체에 따르면 인구수가 30만 명이 넘지 않은 중소형도시에 대형 국제활동을 개최하는 자체가 한국에게 자진 자신감은 큰 성과라고 본다.
- ㄴ. 12월 1일은 25번째 '세계 에이즈의 날'이며 올해 주제는 '행동하라, 에이즈 제로로의 매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ㄱ) 마지막에 사용된 “큰 성과라고 본다.”는 앞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만 그 어떠한 목적어도 찾을 수 없으며 만약 앞에 있는 “따르면”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뒤에는 그에 따른 사실을 서술해야 한다. (ㄴ)에서 “주제는”으로 시작하면 “-이다”란 종결어미를 사용해야 하고, “슬로건을 내걸었다.”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한다면 앞에 “에이즈의 날”이 주어

가 되어 줘야 한다.

4. 시사점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한국어 6급을 통과했지만 번역 과정에서 기초적인 언어적 오류를 많이 범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지는 미지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4.1. 맞춤형 언어 교육

번역을 하기 위해 언어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그 방향이 AB이든 BA이든 외국어 구사 능력이 결국 번역 품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한 번역은 외국어 실력을 향상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번역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외대 언어문화교육원에서 개설한 통번역 과정도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관련 과목의 교사가 모든 외국어를 구사할 수는 없지만 언어별 학습자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특히 통번역 실습 과목에서 어떠한 오류를 자주 범하는지를 인지하고 있다면 필자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4.2. 번역교육의 방향

번역실습 과정의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언어적 오류가 많다고 외국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 번역은 언어적 지식이 요구되는 동시에 비언어적 지식도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도 중요시 하는 문화 교육을 번역교육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언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교사가 하는 경우 학습자들은 외국인으로부터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지만, 해당 언어가 제1외국어인 교사가 외국인로서 바라보는 문화가 다르고 또 학습자와 같은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 원어민 교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번역 교육 현장에서도 반드시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번역교육에서 역번역을 통한 학습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이 모국어의 영향을 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어느 부분에서 받는지 알기 위해 역번역을 통한 비교 연습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역번역과 원문을 비교하면 가장 빨리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학습자들의 중한 번역 과제에서 많은 오류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어 실력이 좋은 학습자도 조사나 어미와 같은 언어적 오류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번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열정적으로 수업을 참여하고 있다. 번역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이러한 학습자들을 도와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번역실력이 향상할 수 있게 교사는 학습 자료를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한다.

6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가 진학을 하지 않고는 사실상 정규 번역 교육 과정을 받기 힘들다. 이는 대학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한 과정이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번역 교육 과정이 더 많이 개설되어야 한다.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개설한 통번역 과정의 중국어 번역실습 수업을 참여한 학습자들의 한·중 번역 텍스트를 오류의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6급 이상인 고급 학습자인데도 불구하고 초급이나 중급에서 범하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았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번역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도 외국어 문법 교육이 지금보다 더 중요시되어야 하고 다양한 어휘 및 표현을 배울 수 있게 읽기 수업에서의 자료도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쓰기 연습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필자는 한국어 문장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일반 한국어 쓰기의 오류와 비교를 못 했다는 점이 한계일 수도 있지만 같은 과정에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통번역과정이 많지 않지만 향후 이런 과정이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과정이 번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관련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 김경식(2006), 번역 오류 분석: 어휘를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Vol.48 No.3, 새한영어영문학회,
- 김원보, 변길자(2016), 전문번역사와 번역전공 대학원전문번역사와 번역전공 대학원생의 번역물 비교연구 -번역오류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Vol.21 No.1, 한국언어연구학회.
- 김윤진(2022), 중국 대학 한국어쓰기 교육 방안 연구 - 실례(實例)를 통한 한국어쓰기 오류 및 부자연스러운 표현 지도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64 No,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41-65.
- 김훈밀(2015), AB 번역에 나타나는 문법오류 유형 분석 및 번역 성취도와와의 관계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Vol.13 No.1,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나은영(200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중급 학습자에서 나타나는 문법 오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Vol.0 No.72 한국국어교육학회, 27-46.
- 등정정(2021),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조사 교체 오류 분석: ‘이/가, 은/는, 와/과’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Vol.43 No,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9-51.
- 박성희(2016),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쓰기 오류 연구, 『사고와 표현』, Vol.9 No.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71-110.
- 백수진(2010), 중한 번역 교육 방법, 중국어교육과연구 Vol.0 No.11, 한국중국어교육학회.
- 석주연, 안경화(2003), 한국어 학습자 표현 오류분석의 몇 가지 문제 : 정의, 확인,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Vol.14 No.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9-215.
- 성초림, 이상원, 이향, 장현주(2001), 번역 교육 현장에서의 번역물 품질 평가: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교강사 설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Vol.2 No.2, 한국번역학회.
- 신지선(2013), 번역교육 관련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 고찰-교육내용, 수업방법, 평가방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Vol.15 No.2, 반한국통역번역학회.
- 신현미(2021), 한국어 학습자의 기능동사 사용 양상 연구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Vol.43 No.3, 한국문화융합학회 285-305
- 안미현(2010), 외국어교육과 번역교육의 상관관계,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Vol.27 No, 한국독일어교육학회, 39-61.
- 유문명(2018),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연어 사용 오류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49,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이병운(2008),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경향 분석, 우리말학회 2008 Vol.23, 우리말연구.
- 이향 (2016), 학부 번역교육의 목표 쟁점과 제안, 프랑스어문교육 Vol.55 No,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 이혜선(2008), 한국 대학생들의 영-한 번역 오류 분석, 현대영미어문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8, 현대영미어문학회.
- 장혜선(2011), TES(Translation Evaluation System) 분석을 통해 살펴본 번역오류항목 가중치에 관한 연구 - 한일 번역물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Vol.15 No.1,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 장혜선(2014), 번역평가를 위한 번역오류 기술 및 분류에 관한 소(小), 연구-통번역대학원 수강생들의 일한(JK), 번역물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Vol.1 No.62, 한국일본어문학회, 99-132.
- 전지은(2021),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대치 오류 양상에 대한 연구, 『문화와 융합』, Vol.43 No.10, 한국문화융합학회, 93-112.
- 조민정(2021), 학습자의 고빈도 오류 유형과 교수 방안 -중국어권 학습자의 학술에세이와 퀴즈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Vol.15 No.2 한국교양교육학회, 233-243.
- 주정정(2020), 학습자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동사’형 연어 구성 오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3,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35-356.
- 최지영(2022),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술논문에서 나타난 학술적 언어사용역 분석 - 중국인 유학생이 작성한 학술 텍스트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Vol.50 No, 영주어문학회, 437-461.
- 한만열(1998), 독어 단문 번역에 나타나는 오류 분석, 獨語教育 Vol.16,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홍혜란(2012), 한국어 고급학습자의 문법적 연어 오류 분석 -학습자 말뭉치와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比較文化研究 Vol.11 No.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류일영(2002), 영어교육에서 번역의 필요성,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배만호 외 역(2003), 『번역 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동인.

Viktor Nam(2013), 번역을 통한 한국어,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6-364.

〈토론〉 “한국어 번역 교육을 위한 학습자 오류 분석 -언어적 오류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장혜선(펜실베이니아대학교)

최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한국어 번역 교육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중국인 학습자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부 과정 학생들도 많이 있어 한국어 교육계에서도 이들을 위한 번역 교육 연구가 촘촘하게 이뤄져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염선화 선생님의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한 번역 오류 연구 및 번역 교육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검토하면서 토론자로서 제가 가진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1. 영일 번역에서 사용된 오류 분류 기준법을 토대로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오류 분석 기본도 함께 고려했다고 언급 하셨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2.2절에 7가지 분류 기준이 완성된 배경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중한 번역 오류에 대한 여러 분류 기준들도 참고하셨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2. 예시의 제시가 ST, TT, 그리고 TT'의 형태로 동일하게 제시되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미 오류와 문장 호응의 오류는 ST를 참고해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ST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어미 오류에서 ‘하나’가 구어체이므로 문어체어미인 ‘-지만’으로 고쳐야 한다는 판단은 재고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3. 어휘 오류를 판단할 때는 동형(同形) 한자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된 예시는 ‘主席’을 한국식 한자음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때에 따라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주석’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부부장(副部长)’과 같은 정치 관련 직책의 경우 대체로 해당 한자의 한국식 독음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같은 맥락에서 연어 관계의 오류 또한 동형 한자어를 한국식 한자어 독음으로 그대로 번역하여 일어난 오류입니다. 이런 경우 앞선 어휘의 오류 양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휘 오류의 분류 체계를 중국식 한자어 독음의 오류만 존재하는지 어휘 선택의 오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예시가 없어서 전체적인 연어 관계의 오류의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어휘 오류와 연어 관계 오류가 모두 동형 한자어의 번역 오류라면 어휘 오류 분류 기준을 동형 한자어 오류와 어휘 선택 자체의 오류 등으로 분류하면 어떨지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5. 또한 이 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오류는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즉 문장의 연결 관계, 또는 대명사의 사용, 그리고 주어 등 문장 성분의 생략과 첨가 등에서 오는 오류는 없었는지, 그리고 다른 오류 유형이 있었다면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제목에 '중한 번역'이라는 것이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번역 연구가 영한/한영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때와 달리 현재는 다양한 언어의 번역 연구, 번역 교육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제목에 이를 포함시키면 연구 목적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본 발표는 중국인 번역 학습자들의 오류를 유형화하는 데 여러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한 번역 품질 연구나 실제 번역 교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미 있는 귀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